"소통하는 대한수의사회, 함께하는 대한민국 수의사"

보도자료



테한수의사형

KVMA News Releas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회장: 허주형

2020년 11월 20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수	누의.	사회(김용	동완 차	장, 김	홍석	과장)	전화	: 03	1-702	-8686	/ 전송	: 031-	-702-1020	
E-ma	ail :	hs392	@kvma	.or.k	r 🗆	Hom	epag	ie : v	www.k	vma.o	r.kr			
총 20)H	□ 사진	없음	□제	공일	: 202	20년	11월	20일					

대한수의사회, 부산대 수의대 신설 시도 즉각 중단 및 강력 저지 결의

- □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및 17개 시·도지부는 최근 수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부산대학교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신설 모의를 즉각 중단하고, 계속 추진되는 경우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붙임 참조).
- □ 붙임 : 결의문 1부. 끝.

붙임

수의사 공급 과잉은 아랑곳 않는 부산대학교의 수의과대학 신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부산대학교는 수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국회와 접촉하는 등 적극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 500여명의 수의사가 배출되는 공급 과잉 상태로, 동물병원의 폐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타업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런 현실을 외면 말고 수의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수의대 신설 모의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는 영국, 캐나다 등보다 수의사 1인당 가축단위 수는 1/18~1/3, 반려동물수는 1/5에 불과하나 수의과대학 수는 더 많다. 그러다보니 동물병원은 사람의 1차의료기관에 비해 매출은 절반이며, 영업이익률은 의료기관의 절반에 못미치는 15%로더욱 낮게 나타난다. 이는 근로시간의 증가 등 삶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동물, 공직 등 특정 분야에서의 수의사 부족은 자가진료 등 진료환경의 문제와 열악한 처우에 기인하고 있으며, 부산대가 제시한 수생생물·어류질병 전문 수의사 양성은 "수산질병관리사"면허가 별도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모르는 제안이다.

이른바 "거점국립대" 중 부산대만 수의학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60년 이상 수의사 양성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1개의 수의과대학이 충분히 지역 수의사 양성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수의과대학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트로피가 아니다. 사회적 필요성은 없는데 그저 인기학과라는 이유로 신설하겠다는 접근이 과연 거점국립대학교로서의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혹여 수의사 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의 주장에 넘어가 수의대 신설을 검토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보다 시급한 것은 기존 수의과대학을 지원하여 교육의 내실을 확보하고, 동물의료체계 정비, 필수 분야처우 개선 등 수의사가 각 분야에 고르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의계는 부산대의 수의대 신설 모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추진되는 경우 강력히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대한수의사회장 허주형 서울지부장 최영민 부산지부장 이영락 대구지부장 박준서 인천지부장 박정현 광주지부장 김광남 대전지부장 정기영 울산지부장 이승진 세종지부장 이인재 경기지부장 이성식 강원지부장 박근하 충북지부장 이승근 충남지부장 전무형 전북지부장 한재철 전남지부장 정광욱 경북지부장 박병용 경남지부장 엄상권 제주지부장 양은범